

최남선의 계몽의 기획과 글쓰기 연구

송기한*

|| 차례 ||

1. 중인계층의 역사적 위치
2. 상층기의 부르주아와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
3. '조선주의'라는 중심화 전략의 이념적 실체
4. 계몽의 기획과 그 한계

【국문초록】

육당 최남선은 조선에 계몽기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 태어났다. 이 시기는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가 있었고, 또 일본 제국주의의 점증하는 위협 또한 내재해 있었다. 그런데 이 모두는 계몽의 기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는 것이어서 그만큼 조선의 시대적 의무는 이 한가지 노선으로 단선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대의 욕구에 부응한 것이 육당의 신분적 임무였다. 잘 알려진 대로 육당은 중인계층이었고, 따라서 근대가 필요로 하는 자본의 축적을 다른 어느 층보다 넉넉히 가질 수 있는 층이었다. 계몽의 필연적 요구라는 시대적 당면 임무와 이를 담당할 상승하는 부르주아 층의 만남, 그것이 육당을 계몽주의자로 나아가게끔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육당은 일본 유학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요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해내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초기 작품세계에서 그 수행의 주체로서 소년을 발견해냈고,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했다. 바다와 소년을 통한 거침없는 낙관주의는 육당 자신을 최초의 변혁세대로 만들게끔하는 충분한 동인이 되었다. 철도를 통한 유량과 이를 통해 깨달게 되는 조선의 열악한 현실은 그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 조선주의로의 현저한 경사가 바로 그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조선주의를 두고 국수주의라든가 계몽주의의 후퇴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러나 육당의 자유와 계몽의 담론들은 중세의 보편적 환경과 통일성의 급격한 해체로부터 얻어진 개성과 자유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도 쉽게 얻어진 자유적 개아의식이 근대 국가 건설에 꼭 필요한 민족적 동일성애로의 필연성 때문에 조선주의라는 또다른 보편주의로 쉽게 빠져들어간 것은 어쩌면 육당의 사유 속에 내재된 최대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것이 후기에 그를 친일주의자로 몰고갔고, 그것이 그의 계몽의 한계였다.

주제어 : 최남선, 근대, 계몽, 조선정신, 기차, 바다, 소년

1. 종인계층의 역사적 위치

육당 최남선이 태어나던 해가 1890년이니 정확히 120년 전이다. 이때는 구한말이면서 조선이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나가던 시기이다. 근대 국가가 무엇이나고 물을 때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근대 국가의 이면을 담지하고 있는 사상적 배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몇몇 현상들이나 개념적 어휘를 갖고 설명하는 것 또한 매우 난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8세기 후반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의 모습과 그 사상적 변이의 흐름들에 대해 단선화시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조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로의 경우였다.

조선의 근대화가 어느 시기부터 시작되었나 하는 기점 문제는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시각을 보여 왔다. 연구자 자신의 세계관과 사회구성체의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한 근대 기점론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영정조 기점론이 근대의 시작점으로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작이라는 준거점에서 그러할 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출발이라는 시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이념적 형태를 갖추면서 활성화된 시기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전제가 덧붙여진다. 지금까지의 근대 기점론이 주로 대내적인 문제들의 돌출과 그에

따른 현상들에서만 그것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학의 제반 형태나 사회의 구성체 등에서 영정조는 이전의 시기와 차별되는 분기점적인 요소들을 분명 지니고 있었다. 중심의 해체와 같은, 다변적 사회의 제반 모습들이 이때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주로 내적인 틀의 것으로 국한되어 있었을 뿐 대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가령, 근대 국가로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주변국과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이 시기에 펼쳐진 개화, 계몽의 연구에 대한 한계였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내·외적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영정조 때 제기되고 진행된 근대화 운동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중국에 대한 이해나 대타의식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개화기에 그런 인식을 보인 대표적인 매체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독립신문』이다. 이 신문에 실린 시가들은 조선국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바 있고, 연호의 사용이라든가 황제국의 선포 등을 찬양하고 언표화했다. 이는 외적 사유의 확장이라는 대타의식에서 빚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원으로서가 아니라 활성화된 모양새로서 조선의 근대화 운동은 19세기말에서부터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조선의 근대가 개화기에 본격 시도된 것이라면, 개화주체의 성격과 그들이 추구한 이념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개화기에 소위 선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이 다수 배출된 것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계층적 성격과 개화사상의 층위가 어떤 것이었던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이 중인층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영정조시대의 개혁을 주도한 북학파에 사상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²⁾. 중인들은 주로 역관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세상 물정에 밝았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적인 이해도 역시 넓힐 수

있었다. 이들은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부의 축적을 통해서 근대적 인간형에 필요한 자유에 대한 감정과 개성에 대한 감각을 다른 어느 층보다 굳건히 가질 수 된다³⁾. 자유와 개성에 대한 분방한 감각은 중세적 통일성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혹은 그런 획일화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이른바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무장한, 상승하는 부르주아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부르주아를 맨 처음의 사실상의 혁명계층으로 파악한 것도 여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생산력의 발전과 이에 기반한 부의 축적은 세상을 변화시킬 역동성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처음으로 실행한 계층이 바로 상승하는 부르주아계층이라는 것이다⁴⁾.

육당은 개화기의 선각자였으며, 소위 계몽을 담당하던 부르주아 계층이었다. 그는 중인 계층이었던 부친을 두었고, 또 이 배경하에서 성장하고 공부했다. 그는 두 번에 걸쳐 일본 유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유학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 갖가지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의 유학생활은 짧게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⁵⁾. 어쩔든 육당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근대 문물을 보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갖게 된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 그는 똑똑한 유학생으로서의 선각자의식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화기의 현실을 이끌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2)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1, p.107.

3) 베버(M.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박성수역), 문예출판사, 1988, pp.17-33.

4) 버만(M. Berman), 『현대성의 경험』(윤호병역), 현대미학사, 1994, p.431.

5) 김윤식, 『(속)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81, pp.41-49.

2. 상승기의 부르주아와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

일본 유학을 마치고 최남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소위 교양주의의 전파와 확산이었다. 그가 애써 강조한 교양주의란 역사철학적인 맥락에서 보면, 거의 계몽주의와 흡사한 것이다. 계몽주의 본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각의 지역이나 특수성에 맞게 그것은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이해하고 규정짓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배경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계몽주의가 탈미신화의 과정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이는 과학적 능력과 힘에 의한 결과이고, 그 어떤 신비화의 영역도 거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교양과 계몽이란 이런 합리주의 정신에서 길러진 것들이다.

일본에서 돌아온 육당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분야도 탈미신화의 영역이었다. 근대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곧 조선이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세적 미몽의 상태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하는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려면 인민 대중을 교양시켜야 하고, 근대사상을 전파시켜야 했다. 그리하여 그가 일차적으로 동원했던 것은 대중을 교화할 매체의 동원이었다. 육당이 『소년』과 『청춘』과 같은 잡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적을 출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간의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했고, 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매개로서 매체만큼 좋은 수단도 없었다. 매체는 최남선에게 무지한 민중을 개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장이었고, 자신이 개화이념과 계몽의 이념을 전파시킬 수 있는 좋은 무대였다.

잡지를 비롯한 서적 출판이 계몽을 위한 아우라였다면, 이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무엇일가에 대한 고민도 필연적으로 수반될 터이다. 말하자면 이런 환경을 이끌어 나갈 변혁의 주체 또한 당연히 필요했을 것이다. 부르주아가 근대로의 여정에서 사실상 맨 처음의 혁명계층이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면, 육당은 아마도 이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는 부를 축적한 중인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에 대한 책무와 역할을 이해한 계몽적 주체로서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의 역동적 의지가 문학적으로 구현된 것이 최초의 신체시인 『해에게서 소년에게』에 나타난 ‘바다’와 ‘소년’의 이미지였다.

처-르썩, 처-르썩, 척, 썩-아./따린다, 부순다, 문허바린다./태산(泰山) 같은 높은 뒤편 같은 바윗돌이나/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나의 큰 힘 아나나 모르나나 호통까지 하면서

따린다, 부순다, 문허바린다./처-르썩, 처-르썩, 척, 튜르릉, 콧//처-르썩, 처-르썩, 척, 썩-아./내게는 아모 것 두려움 업서/육상(陸上)에서 아모런 힘과 권(權)을 부리던 자(者)라도,

내 앞에 와서는 꿈쩍 못하고/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내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처-르썩, 처-르썩, 척, 썩-아. 처...르썩, 처...르썩, 척, 썩...아//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지금까지, 없거든, 통기하고 나서 보아라./진시황, 니팔룬, 너희들이나/누구누구누구나 너희 역시 내게는 굽히도다./나하고 겨를 이 있건 오너라./처...르썩, 처...르썩, 척, 튜르릉, 콧//

『해에게서 소년에게』 1-3연

한국 근대시사에서 인용시만큼 역동성이 느껴지는 시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매우 강렬한 에너지가 솟구치는 작품이다. 그 힘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다’의 강력한 이미지에서 나오는 에너르기이다. 육당의 초기 문학에서 ‘바다’는 두가지 중요한 의미항에 놓인다. 하나는 개혁주체로서의 ‘바다’의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계몽의 통로로서의 ‘바다’이미지이다. 개혁주체로서의 바다이미지는 ‘태산같은 높은 뒤편’나 ‘집채같은 바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힘으로 구현되는데, 여기서 ‘태산’이나 ‘바위’가 개화 계몽의 장애가 되는 매개임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바다의 이미지가 계몽의 주체인 최남선 자신인 것 역시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그리고 바다는 ‘세계성을 지향하는 문명에 대한 동경’⁶⁾이자 그 문명을 받아들이는 회로라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처-르씩, 처-르씩, 척, 썩-아./조고만 산(山)모를 의지(依支)하거나/좁쌀
같은 적은 섬, 손벽만한 땅을 가지고/그 속에 있어서 영악한 체를/부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 자(者) 이리쯤 오너라 나를 보아라./처-르씩, 처-르씩,
척, 썩-아.//

『해에게서 소년에게』 4연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4연은 바다의 광대함을 노래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바다는 문명에 대한 동경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⁷⁾. ‘조그만 산’과 ‘좁쌀 같은 적은 섬’, 혹은 ‘손벽만한 땅’은 국수적인 조선의 모습이면서, 폐쇄되어 있는 조선의 현실을 상징한다. 반면, 바다는 그 건너편에 존재하는 원망의 대상과 연결시켜주는 실체이다. 바다의 그러한 개방성이야말로 계몽주의자 최남선에게 시의적절한 시적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개방적인 바다와 더불어 등장하는 중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배’이다. 그것은 새소식을 전하는 운반수단이면서 시적 주체를 교양시키는 소통수단으로 기능한다(『가을뚝』).

새시대 새물결이라는 계몽의 가열찬 기획을 수행하는 육당의 의도는 ‘바다’의 거침없는 힘과 그것의 개방적 자세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바다’는 육당에게 계몽의 주체이자 힘이며, 계몽의 물질적 국면을 수용하는 매개였던 것이다. 한편, 그의 이러한 계몽의 기획에서 또 하나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 소년의 이미지이다. 『해에게서 소년에게』에서 ‘소년’은 바다와 더불어 긍정적인 이미지로 시화되는데, 이 두 이미지의 긍정적 가치

6)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78, p.205.

7)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p.106.

는 마지막 연에서 상호 교통하면서 극적 양상을 띠게 된다. “저 세상 저 사람 모두 미우나, / 그 중에서 딱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 담 크고 순진한 소년배들이 /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 오너라 소년배 입맞춰 주마”라고 함으로써 소년과 바다는 동일한 차원의 것으로 전화된다. 바다의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이 소년의 그것으로 오버랩되는 것이다.

‘소년’이 육당의 문학에서 갖는 이미지는 ‘바다’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한데, 우선 소년이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소년은 어린이도 아니고 성년도 아닌 중간적 존재이다. 그렇기에 미래에의 열린 가능성과 그 역동적인 힘만큼은 다른 어느 계층보다도 앞선 존재이다. 육당이 ‘소년’을 자신의 시적 테마와 주체로 설정한 것은 이런 뜻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미한 형태로나마 소년의 이미지에서 풍겨나는 근대적 의미소에 관한 것이다. 이 이미지는 중세적 맥락에서는 거의 의미화되지 않는 주체이다. 어른과 유아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중세를 풍미한 인물군들이었는데, 이런 도식에서는 중간층인 소년의 존재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 어중간한 층은 어디에도 편입되지 못한 떠돌이적 존재이고, 그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층이다.

그렇기에 소년이라는 이 개념화는 정체성의 확보와 그것이 갖는 근대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소년은 학교라는 제도와 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 바 있다⁸⁾. 소년이라는 정체성은 근대식 학교 제도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점, 그리하여 근대가 요구하는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매개항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층은 근대 문학의 기원을 논할 때 중요한 인식론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물론 최남선의

8) 가라타니 고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박유하 옮김), 민음사, 1997, pp.151-179.

작품이나 산문에서 소년의 이미지가 서구식 학교의 이미지와 곧바로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대식 제도라든가 학교와 같은 거대문법이 육당의 사유구조에 들어오기에는 조선의 발생론적 토대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소년이라는 정체성의 확보만으로도 그에게 근대로의 길을 열어젖힌 중요한 인식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크고도 넓고도 영원한太極/자유 의 소년대한 이런덕으로/빛나고 뜨거웁고 剛健한태양/자유 의 대한소년 이런힘으로/어두운 이세상에 밝은광채를/뼈디난 구석없이 더더뉘어서/깨끗한 기운으로 타게하라신/하날의 부틴직분 힘써다하네/바위틈 산스골중 나무끝까지/자유 의 큰소래가 부르딛도록/소매안뉘머니속 가래까디도/자유 의 맑은귀운 꼭꼭타도록//관수야 병어리야 귀먹어리야/문둥이 절름발이 온갖병신아/우리게 의심말고 나아오너라/덜겨서 어루만더 낮게하리라/우리는 너의위해 火鞭가디고/神靈한 「뽕티슴」을 베풀양으로/발감게 딛신으로 일올해가난/하날의 뽑은나라 자유대한의/뽕힌바 少年임을 생각하여라//

「少年大韓」 부분

인용 작품은 계몽주의자 육당의 사유체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시이다. 여기서 소년의 함의는 매우 다층적인 의미역으로 짜여져 있다. 우선, 소년은 육당의 계몽의식을 대변하는 매개로 구현된다. 그런데 이 주체는 근대라는 토양에서 교육된 주체가 아니라 천품을 띄고 태어난 선민의식을 가진 자로 이해된다. 육당의 계몽의식이 똑똑한 우등생의식에 있었다는 것은⁹⁾ 잘 알려진 일이거나 이 작품에서도 이런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소년의 임무는 하늘이 준 직분이고, 또 크고도 넓은 영원한 태극과 같은 존재로 격상된다. 길들여진 제도로서의 소년이 아니라 선

9) 김윤식, 앞의 책, p.58.

민 의식으로서의 소년의 모습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년이 계몽의 주체임을 이 작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계몽의 일차적인 목표가 탈미신화 과정에 있다고 했는데, 이 시에서 그러한 과정은 “문둥이 절름발이 온갖 병신”을 구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한 미몽의 상태를 개화시키는 주체는 다름아닌 소년이다.

근대의 계획이 과학에 의한 것이라면 최남선에게 그러한 과학과 등가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소년’이다. 이는 김기림이 해방직후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에서 부른 『새나라송』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기림은 새나라 건설에서 부르주아라든가 프롤레타리아와 같은 이념이 주도하는 국가건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오직 과학에 의해 미신이 사라지는 계몽의 기획을 충실히 실현하는 것뿐이었다. 즉 과학에 의해 주도되는 문명과 혁신적 세계만을 근대의 중심 사유로 인정했던 것이다. “마마와 미신을 몰아내고” “전기와 모타”(『새나라송』)로 지칭되는 과학적 신기원의 세계만이 계몽의 차질없는 계획이라는 것이다¹⁰⁾. 김기림의 이런 인식은 근대의 주체로 소년을 내세운 육당의 사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사적인 단초를 제공해준다. 소년은 ‘아프게 알는 소리’를 그치게 하고, ‘병든 모양을 금시 소생케’하는 전지전능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치유 불가능한 절름발이조차도 소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고 했다. 소년은 조선의 성리학을 대신하고 이제 새로운 사회의 지배원리로 우뚝 올라서게 된 것이다. 소년은 생물학적 개체가 아니라 혁명의 주체, 계몽의 주체로서 육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이다.

소년의 의미가 만들어져 가는 역동적 실체가 아니라 이미 선형적으로 부여된 직분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계몽의 주체로 소년을

10) 송기환, 『한국 현대시와 근대성 비판』, 제이앤씨, 2009, pp.117-118.

인유한 것은 육당 문학이 갖는 득의의 영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인간의 신념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최초의 변혁적 주체가 부르주아였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그런 역동적 실체를 소년의 이미지로부터 구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이란 현존재의 윤곽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미래로의 열린 전망을 담지한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최남선이 이미지화한 소년의 궁극적 실체였다.

3. ‘조선주의’라는 중심화 전략의 이념적 실체

1) 대타의식으로서의 일본과 세계

근대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일까. 개화 초기 주시경은 근대 국가형성의 요인으로 언어, 민족, 땅 등 세가지 요소를 든 바 있다¹¹⁾. 언어학자였던 주시경은 이 가운데 언어를 가장 먼저 우위에 두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가 근대 국가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요소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어 뚜렷한 중심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지름 길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개화기의 문학 양상을 율문 중심의 문학이라 단정해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노래야말로 집중화된 담론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매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화기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개화기 소설의 서사구조가 이전 시기에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시각 역시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봉건 사회가 집중화된 사회, 중심지향적인 사회였다고 한다면, 근대 국가 형성기였던 개화기

11)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필요」, 『서우』2, 1907, p.33.

는 또다른 의미에서 중심을 지향했던 사회였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개화기는 근대 국가 형성기라는 보편적 현상에다가 국가 위기라는 애국 계몽 의식이 첨가된 사회구성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특수한 양상들이 조선만이 갖는 고유한 개화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정언명령, 그리고 국가 위기라는 이중적 특수성이 만들어내는 개화기의 현실은 육당으로 하여금 또 다른 동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게끔 한다.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바다’와 ‘소년’의 이미지를 통해서 펼쳐보인 육당은 일본 유학을 통한 견문의 확장을 통해서 조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당위적 요구보다 앞서서 점증하는 일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유는 『해에게서 소년에게』에서 보여주었던 낙관적, 열정적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 거침없는 파도의 낙관적 힘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에 대한 사실적 인식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는 소년의 맹목적인 눈이 아니라 현실의 비판적 시선으로 회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작품이 『경부철도가』이다.

1. 우렁차게 떠하는 汽笛소리에 / 南大門을 등지고 떠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의 形勢같으니 /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2. 늙은이와 젊은이 섞어 앉았고 / 우리 내외 외국인 같이 탔으나
內外親疎 다같이 익혀 지내니 / 조그마한 판 세상 절로 이뤘네//
3. 關王廟와 蓮花峰 둘러보는 중 / 어느 덧에 龍山驛 다달았도다
새로 이룬 저자는 모두 日本집 / 이천여 명 日人이 여기 산다네/
(중략)
62. 仁川까지 여기서 가는 동안이 / 六十時間 걸려야 닿는다는데
日本馬關 까지는 不過 一時에 / 支滯없이 이름을 얻는다하네
63. 슬프도다 東萊는 東南第一縣 / 釜山港은 我國中 둘째큰 港口
우리나라 땅같이 아니 보이게 / 저렇 듯한 甚한양 忿痛하도다

64. 우리들도 어느 때 새 기운 나서 / 곳곳마다 잃은 것 찾아 들어
우리장사 우리가 주장해보고 / 내나라 땅 내 것과 같이 보일가//
65. 오늘 오는千里에 눈에 떠는 것 / 터진 언덕 붉은산 우리같은 집
어느 때나 내 살림 넉넉하여서 / 보기 좋게 집 짓고 잘살아보며//
66. 食前부터 밤까지 타고온 汽車 / 내 것같이 앉아도 實狀 남의 것
어느 때나 우리 힘 굳세게되어 / 내 팔뚝을 가지고 굴러볼거나//
- 『경부철도가』 부분

오오와다 타케키(大和田健樹)의 『滿韓鐵道歌』를 모방해서 창작했다는 최남선의 『경부철도노래』이다¹²⁾. 육당이 이 시가를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철도에 대한 예찬 혹은 신비로움 때문이었다. “우렁차게 토해낸 기적소리”라든가 “빨리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날개가진새라도 못따르겠네” 같은 표현은 철도에 대한 예찬 바로 그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느덧에 용산역 다다렸구나”라는 인식에 이르면, 철도의 속도에 대한 육당의 신비로움은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본질이 아니라 현상의 측면에서 이들이 발견한 근대가 ‘바다’였다면, 근대의 또다른 축은 육당에게 이렇듯 ‘철도’로 나타난다. 1900년대에 들면서 일제는 침략과 약탈의 수단으로 조선에 철도를 부설하기 시작했다. 경인선이 처음 열리고 경부선이 개통된 것이 이 무렵의 일이다. ‘바다’가 근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통로였다면, 철도는 그러한 근대가 이루어놓은 결과물에 해당된다. 또 ‘바다’가 근대에 대한 막연한 선망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철도’는 그러한 근대를 구체적으로 보이게끔 한 실체였다. ‘철도’가 근대의 중요한 척도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것이 뽑내는 속도 때문이다. 봉건 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속도에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렇기에 ‘철도’로 상징되는 근대의 모습은 과학의 유토피

12) 오오타케 키요미, 『근대 한일 『철도창가』』, 『연구논문집』 38, 성신여자대학교, 2003 참조.

아를 꿈꾸었던, 근대의 이상을 실현코자 했던 계몽주의자들에게선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육당이 『경부철도가』를 지은 것은 근대라든가 계몽의 신기한 자의식과 같은 선망의 감수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는 오오와다 카케기의 『滿韓鐵道歌』와 비교하면 쉽게 확인되는 일이다. 『滿韓鐵道歌』는 노래와 사진을 실어가면서 조선이나 중국동북부의 지리를 익히게끔 만들어진 시가였다. 말하자면 일본의 지식인이나 민중들에게 이들 지역의 전반적인 소개와 이해를 위해서 만든, 다분히 계몽적 의도가 짙게 깔린 시가집이었다. 물론 이러한 창작배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당이 『경부철도가』를 지은 것은 오오와다의 『滿韓鐵道歌』의 창작배경과 매우 다른 것이다. 『경부철도가』에서도 『滿韓鐵道歌』처럼, 조선의 명승고적과 지리적 이해를 의도한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육당은 각각의 연마다 나오는 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당은 이런 계몽적 이해 이외에도 이 시가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분노라든가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야유를 보낸다. 가령, 용산역에 이르러서는 “새로 이룬 저지는 모두 日本집 / 이천여 명 日人이 여기 산다네”라고 함으로써, 점증하는 일본에 대한 위협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육당의 이러한 인식은 온양온천에 이르러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시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한 분노들을 우리의 주체적 능력에 대한 실험이나 진단으로까지 이해하고 있다. “우리들도 어느 때 새 기운 나서 / 곳곳마다 잃은 것 찾아 들이여 / 우리장사 우리가 주장해보고 / 내나라 땅 내 것과 같이 보일가”하는 부국강병의 의지가 있는가 하면, “食前부터 밤까지 타고온 汽車 / 내 것같이 앉아도 實狀 남의 것 / 어느 때나 우리 힘 굳세게되어 / 내 팔뚝을 가지고 굴러볼거나”하는 자조의 인식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근대의 상

정인 철도 자체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육당에게 철도는 근대화를 상징하는 신기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매개로 자리잡는다. 육당의 조선주의가 싹트게 되는 계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근대의 상징이었던 철도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육당이 인식한 조선주의는 매우 다층적인 함의를 갖는다.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국수주의적 양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면, 조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야말로 자연스런 인식적 소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지는 것이 일본에 대한 대타의식으로서의 조선주의이다. 이는 현저하게 민족모순에 가까운 것이어서 근대 국가의 형성과는 또다른 형태의 사유를 낳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육당의 조선주의는 이렇듯 계몽의 당면임무인 근대국가로서의 조선주의와 일체의 대타의식으로서의 조선주의라는 이중적 함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육당의 조선주의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막연한 국수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국가적인 웅출성과 편협성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과정에서 세계문학이라든가 외국문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¹³⁾. 물론 이러한 과정이 하나의 보편성을 갖는 것이라고 해도 육당의 문학적 인식과 창조과정의 현대적 의미의 제3의 문학이라고 할 만한 고유의 인식과 장르적 독립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는 근대 초기의 계몽의 기획자이고 소박한 의미로서의 변혁의 주체, 개혁의 주체에 불과한 존재였다. 그럼에도 그가 인식한 세계라든가 그것으로의 육박과정이 중요한 것은 그의 그러한 행위가 조선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3) 버만(M. Berman), 앞의 책, p.431.

한양아 잘있거라 갓다오리라/압길이 질편하다 수록십만리/사천년 넷도읍
 평양지나니/굉장할사 압록강 큰쇠다리여//칠백리 요동벌을 바로 뚫코서/다다
 르니 봉천은 넷날 심양성/동북릉 저술박에잡긴 연기는/이백오십년 동안 꿈자
 죄로다//((중략)//홍안령 피부리에 걸닌해보고/바이갈 가람속에 잠긴달보며/
 저무는날 새는날 들에지내기/몇날이나 어언간 우랄산이라//

『세계일주가』 부분

『정부철도가』보다 좀더 나중에 쓰여진 『세계일주가』이다. 실상 이 작품에서 어떤 세계관적 사유나 그 이해를 읽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작품은 세계 곳곳의 지역을 소개하고 이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가의 각 장마다 작품의 내용 못지 않은 장황한 내용을 주석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주객이 전도될 정도로 시의 형식을 벗어나 있기도 하다. 어쩌면 말로 된 지도라고 할 정도로 세계 각 지역의 소개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의미있는 것은 시의 내용이 담고 있는 외적 확장성에 있다. 조선 내부의 협소한 인식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짐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인식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이런 의도는 『해에게서 소년에게』에서 선보인 바다의 개방성 과도 통하는 항목이다. 이 작품에서 육당은 ‘조그만 산’과 ‘좁쌀 같은 적은 섬’, 혹은 ‘손벽만한 땅’이란 조선의 편협된 모습을 내보이면서, 폐쇄되어 있는 조선의 현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반면, 바다는 그 건너편에 존재하는 보다 넓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실체로 묘사한 바 있다. 바다의 그러한 개방성이야말로 계몽주의자 육당에게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상이었다. 그런 개방적 인식들의 확대된 결과가 『세계일주가』이다. 육당은 이 작품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나 관념 혹은 세계인식을 보여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변혁적 의지도 피력하지 않았다.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지리부도를 언어로 풀어헤친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모습을 담담히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나열과 순열조합의 현상들을 모더니즘적 산책자의 세계라 불러도 좋고 풍경을 언어화한 사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일주가』에 나타난 세계상의 단순한 조합에서 육당이 의도한 것은 국수주의라는 좁은 한계, 조선반도라는 협소한 공간 극복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근대 국가임을 우뚝 세우는 길이란 외적 아우라의 경계 내지 테두리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육당의 세계일주가 보여주는 독특한 여로 구조는 조선을 명확히 인식하는 대표적인 서사가 될 것이다.

‘철도’는 근대의 보증수표였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경이로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근대를 대변하는 매개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철도는 육당의 사유체계에서 계몽의 기획을 만들고 이를 추진할 정도의 동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그것은 근대의 이상을 담아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뼈아픈 좌절 역시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육당을 비롯한 근대주의자들에게 철도는 이상과 좌절을 동시에 포지하는 아이러니컬한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이런 한계들은 육당으로 하여금 조선을 경계지우는 ‘조선주의’의 또다른 강화를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2) 근대국가를 여는 동질화로서의 조선주의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핵심 동력은 끼리끼리의 동질화이다. 이런 세분화 전략은 어느 특정 지역을 하나로 묶는 문화권에 대한 안티담론이자 원심적 세계로 나아가는 단초가 된다. 가령, 라틴 문화에 대한 지방 정권의 수립이나 지방어에 대한 관심, 국수주의 운동은 모두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초기 인식소들이었다. 이런 인식소들이 아시아권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자문화권 혹은 중화주의의 궁극이 하나의 중국과 그 변방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익히 잘 알려진 일이다. 동아시아에서 탈중심화의 진

략, 곧 근대 국가로의 길이란 그 나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강화하는 전략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육당의 ‘조선주의’이다. 이 이념은 한편으로는 국수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대타의 식으로서 형성된 이념이다. 전자가 주로 계몽의 기획과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주로 저항의 의미와 관련된다. 육당의 조선주의가 육일승천하는 낭만이나 거침없는 성장동력으로만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은 여기에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한줄기 빠진맥이 삼천리하야/살지고 아름답고 튼튼하게된/이러한 꽃세계
를 이루었으나/우리의 목숨근원 이것이로다//(중략)//억만년 우리 역사는 영
예뿐이니/그의눈 아래에서 기록함이오/억만인 우리 동포는 원기찾으니/그의
힘 나리받아 생김이로다//그리로 소사나난 신령한물을/마시고 난 큰사람 열
마 많으뇨/힘있난 조상의피 길히전하야/현금에 우리혈관 돌아다니네//

『태백산과 우리』 부분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동질화 전략이 한데 모여져 나타난 것이 육당의 ‘조선주의’이다. 그리하여 이 기운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뿔어나가고 꽃세계를 이루면서 우리의 목숨의 근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시공을 넘나들며 우리 민족에 덧씌워져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솟아난 신령한 물을 우리는 마시고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이 조선의 정기는 힘있는 조상의 피가 되어서 지금 우리의 혈관으로 돌아다니는 전일체적인 것으로 구현된다. 땅과 사람이 합체되어서 솟아난 것이 태백산이고, 그 산의 기운을 다시 받아서 조선의 맥박은 뛰는 것, 이것이 육당이 말한 조선주의의 실체이다. 따라서 그것은 조선의 얼이며, 심혼에 깊이 박힌 조선의 영혼이라는 것이다.

이런 동질화 전략은 세계의 중심을 조선에 둬으로써 더욱 확대된다. 이

는 「세계일주가」에서 펼쳐보인 파노라마식 풍경 관찰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이때의 관찰방식이 조선을 각성시키는 단순한 매개에 불과했다면 조선의 세계화 전략은 조선이라는 하나의 실체로 동질화하려는 욕망의 절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면의 물이 다 말으기까지/정의의 기록은 오직이리라./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의 등탑이 되어 사람의 자식의 큰길을 비추여 주리라.//태양이 재덩어리
되기까지/정의의 주인은 반다시 이리라/그리하여 어이닭의 날개가 되어 발발
떠난 병아리를 덥혀주리라//아아 세계의 대주권은 영원히 이 침탑---이 팔뚝
에 걸닌 노리개로다//하날스면은 휘둥그렸코 땅바닥은 평퍼짐한데/우리님
---태백이는 웃둑//

『태백산부』 부분

육당은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후, 그 시적 관심이 바다에서 산으로 옮겨오게 된다. 이를 두고 열린 개방성에서 산의 폐쇄성으로의 이동이라 했지만¹⁴⁾, 이러한 변화가 육당의 시세계에서 커다란 의미변동을 뜻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계몽주의자로서의 계획이나 세계관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다. 육당이 전개해나간 계몽의 계획은 초지일관한 것이었다. 그의 시야가 ‘바다’로 향할 때, 그는 조선의 개화주의자였다. 어떤 장애도 극복하고 앞으로 거침없이 전진해나가는 그의 힘찬 목소리는 소년의 등을 타고 달리는 기관차와 비슷했다. 여기에는 그러한 이념의 기관차를 제어할 어떤 세계관이 놓여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의 계몽의 기획은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다¹⁵⁾.

14) 정한모, 앞의 책, p.205.

15) 육당의 조선주의는 단군을 비롯한 우리 역사를 세계사의 중심으로 이해한 역사 연구에서 그 절정을 보인다.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2008 참조.

그러나 이런 막무가내식 개화외지가 조선의 풍경 속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만다. 그 매개항에 놓인 것이 열차였다. 육당은 열차에 의한 여로구조 속에서 조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열차는 육당에게 계몽의 기획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육당의 세계관 속에 내재하게 된 것이 조선이라는 육체, 곧 땅에의 사유였다. 땅은 조선주의를 인식하는 매개로 육당에게 새롭게 자리잡게 된다. 땅은 육당에게 모성이라든가 대지의 생명성과 같은 보편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곳에 위치한다. 그것은 역사와 사회적 의미역을 가져다주는 독특한 알레고리가 되는 것이다. 육당에게 땅은 생명이며, 삶의 터전이며, 조선의 얼이 숨쉬는 공간이다. 나아가 『태백산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조선이라는 틀과 판을 넘는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분명 육당의 과잉된 조선주의가 빚어낸 것이긴 하지만, 새로운 국가 건설, 즉 조선이라는 근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중심화 전략으로 이런 정도의 의식과잉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조선의 국토가 민족의 삶의 터전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 육당에게는 혼의 세계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선의 국토는 산하 그대로 조선의 역사며 철학이며 시며 정신입니다. 문자 아닌 채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고 또 재미 있는 기록입니다. 조선인의 마음의 그림자와 생활의 자취는 고스란히 똑똑히 이 국토의 위에 박혀 있어 어떠한 풍우라도 마멸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조선 역사의 작은 일학도요 조선정신의 어설픈 일탐구자로, 진실로 남다른 애모, 탄미와 한가지 무한한 궁금스러움을 이 산하 대지에 가지는 자입니다. 자개돌 하나와 마른 나무 밑둥에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흥미와 또 연상을 자아냅니다¹⁶⁾.

인용글은 육당이 국토 순례를 하고 난 다음 쓴 글이다. 그는 조선의 국토를 산하 그대로 조선의 역사며 철학이며 시며 정신이라고 했다. 또한 조선인의 마음의 그림자와 생활의 자취가 고스란히 이 국토 위에 박혀 있는 것이라고도 했고, 자개돌 하나와 마른 나무 밑둥에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흥미와 또 연상을 자아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육당이 국토 순례를 한 것은 조선이라는 역사를 자기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나와 국토의 동질성을 발견하기 위한 의도된 동기가 깔려 있었다. 근대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라는 동질의식이 필요했다¹⁶⁾. 따라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우리 나라,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을 인식시키는 토대로서 국토만큼 좋은 대상도 없을 것이다. 국토란 그의 표현대로 산하 그대로의 한민족의 역사며 철학이며 시며 정신인 까닭이다.

육당의 이런 인식들은 『경부철도가』에서 보인, 일본에 대한 대타의식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동질화된 조선만이 전부였다. 그의 신체시나 창가 창작 등은 모두 조선의 계몽과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길과 분리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육당의 문학에 대해 미학적 함량을 재단하는 행위나 신체시의 리듬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육당의 사유 속에 깊이 자리한 것은 조선의 계몽 뿐이었다.

육당의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인 문학 양식인 시조에 대한 인식과 그 부흥 논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성리학의 토양에서 발생한 시조가 현대에도 가능한가의 여부는 육당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이 조선의 정신과 혼을 일깨우고 하나된 조선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시조의 발생론적 토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16) 최남선, 『순례기의 권두에』, 『최남선작품집』(정한모편), 형설출판사, 1977, p.179.

17)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p.287.

시조는 조선인의 손으로 인류의 韻律界에 제출된 一詩形이다. 조선의 풍토와 조선의 성정이 음조를 빌어 그 渦動의 一形相을 구현한 것이다.(중략) 조선심의 방사성과 조선어의 섬유조직이 가장 압착된 형태에서 구현된 공든 탑이다.(중략) 또 한 옆으로 조선인 민족생활--더욱 그 사상적 생활의 발자국을 남겨 가진 것이 불행히 조선에는 다시 보기 어려운데, 이 시조의 고리에 능히 천여년 계속한 약한의 遺珠가 간직되어 있어, 그 絶無僅有의 一物을 지음은 조선생활의 중요한 一淵源을 알려주므로 많은 감사를 그 앞에 드려야 할 일일 것이다.¹⁸⁾

시조가 조선의 국민문학이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음을 육당은 세가지 이유에서 찾고 있다. 첫째, 시조는 조선의 정수이고, 둘째는 시조에 표현된 조선어는 조선인들의 공든탑이며, 그러므로써 조선인의 생활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이라는 중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육당에게 국토와 시조는 거의 등가관계에 놓인다. 국토라는 물질과 시조라는 정신의 결합이야말로 육당에게 조선이라는 굳건한 동질성을 확인하는 길이였기 때문이다.

4. 계몽의 기획과 그 한계

육당 최남선이 태어난 것은 조선에 계몽기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다. 때는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당면과제가 놓여 있었고, 또 일본 제국주의의 점증하는 위협 또한 내재해 있었다. 그런데 이 모두는 계몽의 기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는 것이어서 그만큼 조선의 시대적 의무는 이 한가지 노선으로 단선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대의 욕구에 부응한 것이

18) 최남선, 「조선 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

육당의 계층적 지위의 한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시대의 의무로 부각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육당은 중인계층이었고, 따라서 근대가 필요로 하는 자본의 축적을 다른 어느 층보다 넉넉히 가질 수가 있었다. 계몽의 필연적 요구라는 시대적 당면 임무와 이를 담당할 상승하는 부르주아 층의 만남, 그것이 육당을 계몽주의자로 나아가게끔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육당은 두 번에 걸친 일본 유학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요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해내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초기 작품세계에서 그 수행의 주체로서 소년을 발견해냈고,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했다. 바다와 소년을 통한 거침없는 낙관주의는 육당 자신을 최초의 변혁세대로 만들게끔하는 충분한 동인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철학이 결여된 이런 낙관주의는 또다른 역능에 부딪히게 된다. 역설적이기도 근대의 상징이었던 철도는 육당으로 하여금 이런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철도를 통한 유량과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조선의 열악한 현실은 그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 조선주의로의 현저한 경사가 바로 그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조선주의를 두고 국수주의라든가 계몽주의의 후퇴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육당은 개화주의자 내지 계몽주의의 깃발을 높이 올린 이후로 한번도 이 담론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육당은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내외적 인식과 그 자장으로부터 자신의 계획을 거듭거듭 밀고나갔다. 『해에게서 소녀에게』에서 보여주었던,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유토피아적 계몽의 기획이었다면, 조선주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은 현실적 계몽의 기획이었기 때문이다. 육당은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만의 동질화 전략을 필생의 과제로 받아들였다. 조선주의는 그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이다. 그가 조선의 혼과 정신을 찾아나설때, 일차적으로 주목한 것은 조선의 국토였다. ‘태백산’으로 솟아난 조선의 역동성이 그것인 바, 그는 이를 계기로 바다나 소년같은 초기의 초월적

낙관주의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게 된다. 산으로 표상되는 구체적인 조선을 발견함으로써 그의 계몽의 담론은 형이상학적인 이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노력의 결과가 조선으로의 여행담론이었다. 그의 여행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바, 열차를 통한 것과 산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국토에 대한 발견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가 일본 제국주의라는 안티테제로 형성된 조선주의로의 단초적 접근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세계사적으로 뻗어나가는 보편적 접근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간에 이 화두 속에 담겨있는 것은 조선이라는 동질화 의식의 소산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근대 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러나 육당의 자유와 계몽의 담론들은 중세의 보편적 환경과 통일성의 급격한 해체로부터 얻어진 개성과 자유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도 쉽게 얻어진 자유적 개아의식이 근대 국가 건설에 꼭 필요한 민족적 동일성으로의 필연성 때문에 조선주의라는 또다른 보편주의로 쉽게 빠져들어간 것은 어쩌면 육당의 사유 속에 내재된 최대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견고할 것 같은 육당의 조선주의가 일제라는 강력한 힘 앞에 무너졌을 때, 그 사유의 공백을 다시 메꾸어 나가는 사상사적 과제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조선주의가 빠져나간 보편적 허무주의를 제국주의라는 거대 담론이 메꿀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육당 사유의 근본적 한계가 아니었을까. 조선주의가 송두리째 빠져나갔을 때, 육당에게는 또 다른 거대 담론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그 공백을 제국주의의 견고한 담론이 쉽게 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육당의 친일주의는 여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 김윤식, 『(속)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81.
-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1.
- 문성환, 『최남선의 에크리튀르와 근대·언어·민족 : 최남선의 글쓰기를 통해 본 한국근대담론』, 한국학술정보, 2009.
- 송기한, 『한국 현대시와 근대성 비판』, 제이앤씨, 2009.
-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78.
- 정한모 편, 『최남선작품집』, 형설출판사, 1977.
-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필요』, 『서우』2, 1907.
- 최남선,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2008.
- 최남선, 『최남선전집』5-6, 현암사, 1973.
- 가라타니 고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박유하 옮김), 민음사, 1997.
- 오오타케 키요미, 『근대 한일 『철도창가』』, 『연구논문집』 38, 성신여자대학교, 2003.
- 버만(M. Berman), 『현대성의 경험』(윤호병역), 현대미학사, 1994.
- 베버(M.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박성수역), 문예출판사, 1988.

Abstract

A Study on writing and project of enlightenment of
Choi Nam Sun's Poem

Sohng, Ki-Han

This paper studies characteristic of enlightenment and writing of Choi Nam Sun and analyzes the project of enlightenment and universe of Choi Nam Sun. It is times pointed out that poetry of statement, poetry of sole of korea, train, sea of Choi Nam Sun was features of the his hole poetry.

His poetry of statement and poetry of lyric characteristic and modern senses of Choi Nam Sun has been involved features the first stage poetry. That is train and sea, child in whole period. Especially it restarted experience of the project of enlightenment and characteristic sole of korea and modern enlightenment of with that period.

The poetical investigation of Choi Nam Sun as we pointed out in his poetry, embodies modern characteristic of modern korean poetry. That is to say, his orientation in his modern and life, have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in his whole poetry. The train image and sea, child are the important concept the whole stage poetry. This work is the first stage departing from poetry of statement and lyric in the Choi Nam Sun's Poem.

Key-words : Choi Nam Sun, modern, enlightenment, sole of korea, train, sea, child

송기한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17-282-4906

전자우편 : skh906@hanmail.net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0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12월 15일 게재 확정됨.